

2017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윤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3호 -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의 사전심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의 사전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번부터 보고서의 집필방향 설정 및 작성내용 검토 단계에서 두 번에 걸쳐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 주관 하에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행내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한편 작성내용의 사전검증을 강화하였음.

둘째, 금융안정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협의회 시 보고서의 개황부분을 집중 심의하는 순서를 마련하여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이어서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의 체계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우리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보고서 작성방향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저금리에 적응해 온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보고서 전반에 걸쳐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음.

다음으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고 언급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법정보고서라는 취지에 유념하여 분석의 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 관련 평가들을 통화정책에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위원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중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나, 일부 위원은 금리가 자연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신용 레버리지(leverage)에 대한 평가 시 신용 갭(gap)이 신용사이클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갖는 의미나 리스크 수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평가 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금리의 장기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일부 위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 시 지역별 주택가격, 거래량, 분양 및 준공물량 등 동향 분석에 더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시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확보한 미시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검사와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복원력 부분과 관련하여 외생적인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잘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의 상호연계성, 시장참가자의 쏠림현상 등으로 리스크가 내생적으로 확대되는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시장국의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대내외 충격이 금융기관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보다 비은행권에 더 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다주택자 중 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부족자금 조달 행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현안분석에서 일부 위원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관련하여 금리상승의 영향에 대한 정태적 분석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는 소득, 가계부채, DSR 등의 변화까지 동시에 고려한 동태적 분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국내 가계신용 대출시장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용평가의 경기순응적 행태에 따른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차주의 신용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서 신용대출의 증가 가능성 등 다양한 연관 주제로 분석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상이 시장원리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경로 관련 분석 내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분석지표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지난달 당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는데, 당행의 금리인상과 정부대책 등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monitoring)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제안도 미시적인 측면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안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금안회의 격상에 따라 금융안정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 경제주체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금안회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운용하기 위해서는 당행의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가 적시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음.

우선, 금융안정보고서의 리스크 평가부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시장·상품 간 횡단면적인 연계성, 동태적 측면에서 위험의 내생적 전이경로, 실물경기와 글로벌 금융순환과의 상호작용 등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분석능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 측면과 구분되는 당행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당행의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결과와 조기경보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보고서에 거시경제, 시장, 신용,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자금조달 및 유동성, 위험전이 등 6개 영역에 대한 6단계 리스크 평가결과를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Financial System Vulnerability Heat Map을 발표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의 경우 중장기 시계에서 동태적 충격 시나리오(scenario) 하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발표하여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데 반해, 당행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부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다소 미흡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태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앞서 언급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영란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 처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관부서와 유관부서 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협업을 통한 분석기능 강화를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안)(생략)